

서울시 THE DAILY NEWS REVIEW - 16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코로나19 대응 주요 소식

발행일 2020.3.13.

발행처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발행인 최재필 · 김창보

홈페이지 www.scdc.or.kr · www.seoulhealth.kr

- 국내 '코로나19' 114명 추가 확진으로 총 7,869명, 서울시 오늘만 13명 추가 확진, 총 218명
- 코로나19 전세계 사망자 4,635명(치명률3.7%)...확산 추이 세계 전 지역에서 가속화
- 주저하던 WHO, 110개국·12만명 감염에 결국 '최고 경보' 팬데믹 선언
- 코로나19 추경, 상임위서 6조2천억원 증액요구...슈퍼추경 전망
- 평상시 병실 20% 비우는 감염병전문병원..."공공병원 활용해야"
- 서울시, 알바, 일거리 중단...'코로나19' 타격 청년수당, 청년 프리랜서 및 소상공인 등 긴급지원
- 정부 "수도권 1,200개 병상 확보...생활치료센터 3,300여명 정원으로 확충"

1. 발생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판

	확진환자 현황			검사 현황 ⁴⁾			자가격리자 현황		
	확진자	사망자	격리해제	검사건수	검사중	결과음성	계	감시중	감시해제
서울시 ¹⁾	218	0	38	37,851	3,759	34,092	5,365	1,763	3,602
전국 ²⁾	7,869	66	333	227,129	17,727	209,402	-	-	-
전세계 ³⁾	126,371	4,635	-	-	-	-	-	-	-

1)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동향' '20.03.12. 0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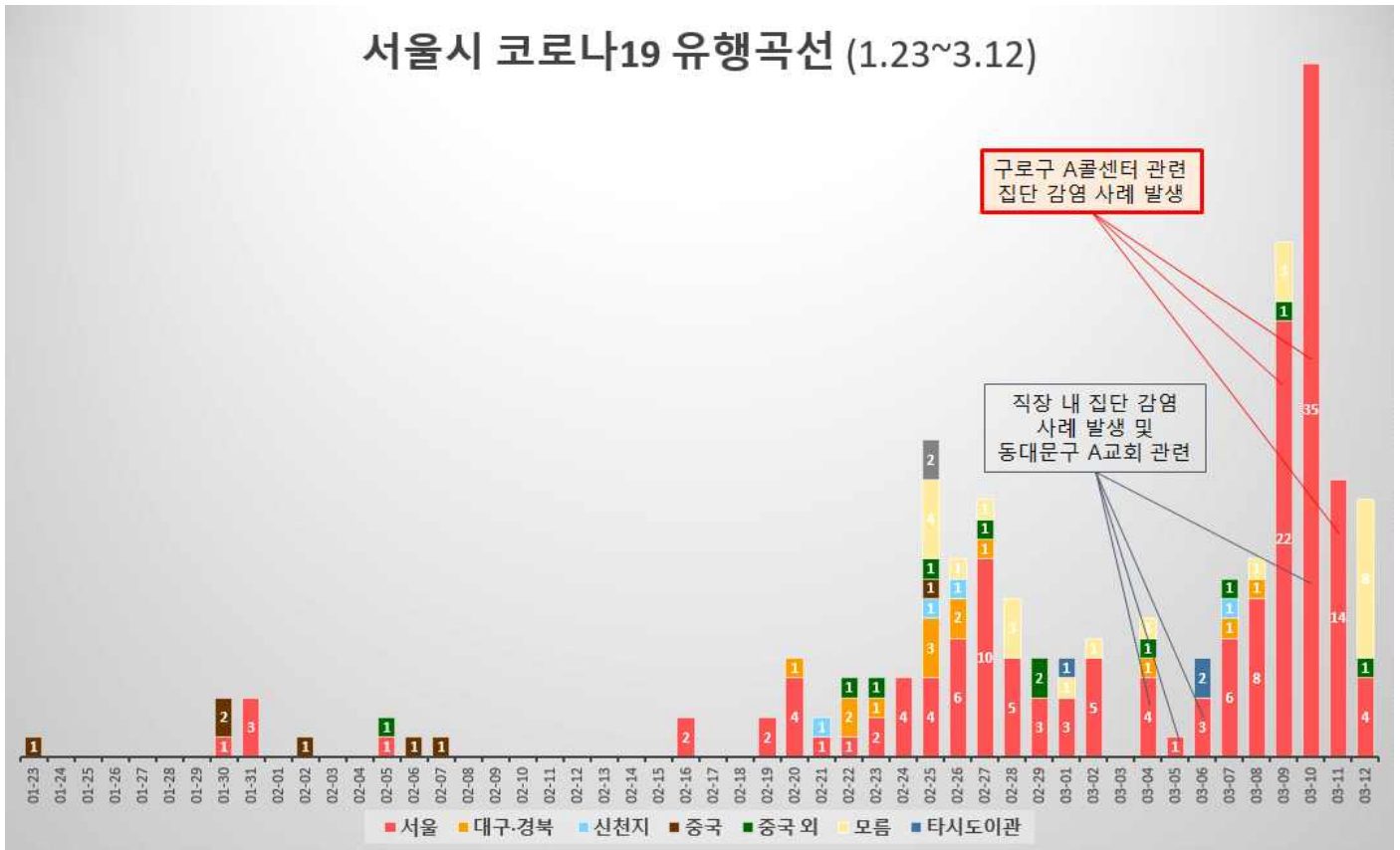
2) 전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20.03.12. 00시 기준

3) 전 세계의 경우, '위키피디아' '20.03.12. 16시 기준

4)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 실시 현황

- 서울시 신규 확진환자 13명, 누적 확진환자는 총 218명
 - 입원(격리)환자 180명, 격리해제 38명 / 질병관리본부 공식발표 확진환자 수는 212명(미발표 6명)
 - 3월 12일 00시 기준, 우리나라 사망자는 총 66명으로 치명률은 0.84%이며, 서울시는 사망자 없음

● 서울시 확진환자 일별 발생 현황



서울시 코로나19(COVID-19) 유행곡선

● 서울시 신규 확진자 환자구성

구분	계	구로구 콜센터 관련	콜센터 직원 접촉	해외 방문력	조사중
3.11(수)	13	2	2	1	8
3.10(화)	14	11	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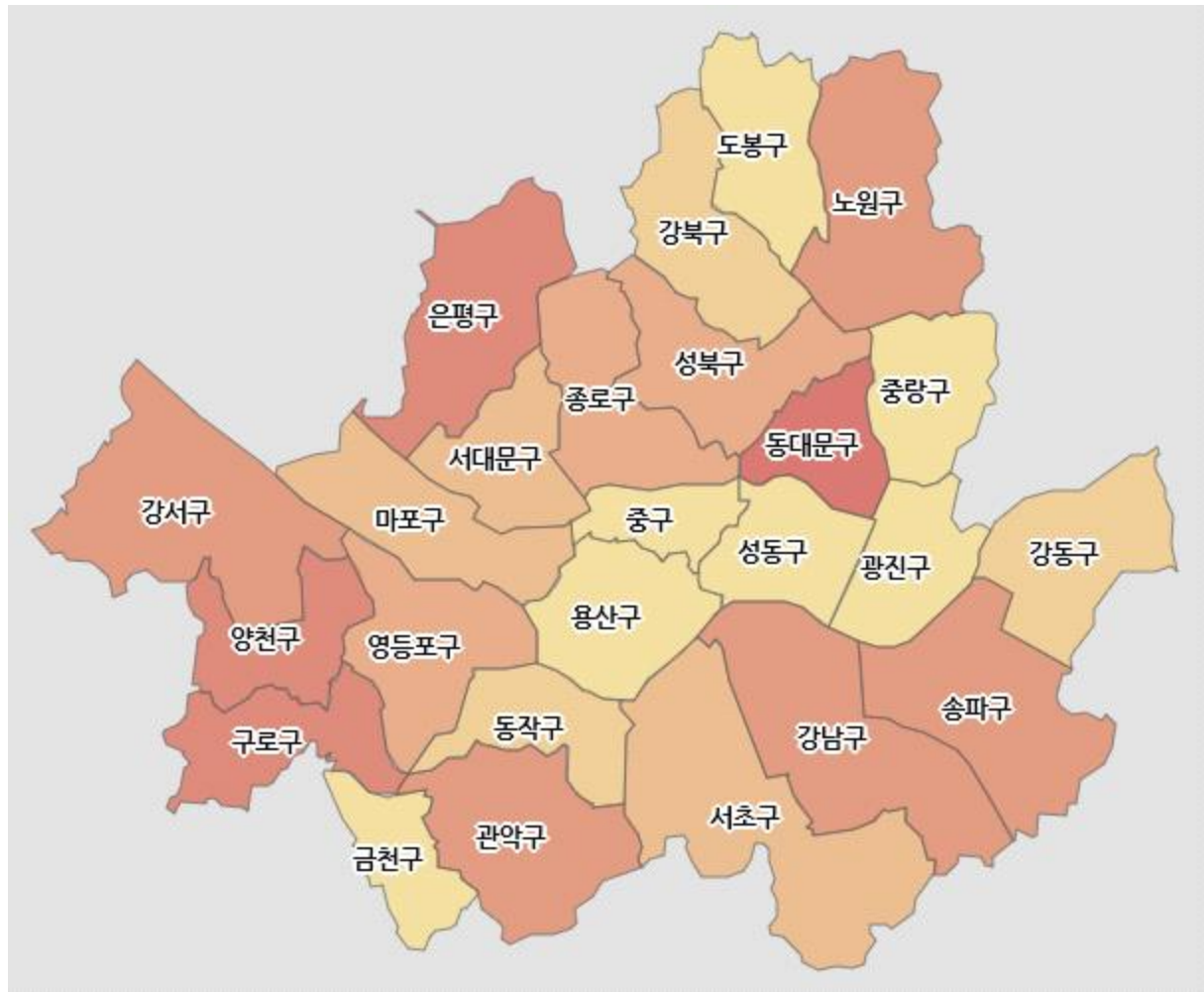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3월 12일 00시 기준,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총 219명임 (거주지 기준으로, 동대문17, 은평16, 구로16, 양천14, 강서13, 관악13, 송파13, 노원12, 강남12, 종로11, 영등포9, 성북8, 서대문7, 마포6, 서초6, 동작5, 강동5, 강북4, 성동3, 중랑3, 금천3, 광진2, 중구1, 용산1, 도봉1 순으로 발생함. 기타17(타시도 이관))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기타	계
누계	11	1	1	3	2	17	3	8	4	1	12	16	7	6	14	13	16	3	9	5	13	6	12	13	5	17	219
3/11	-	-	-	-	-	2	1	2	-	-	-	2	2	1	-	-	2	-	-	-	-	-	-	1	-	-	14
3/10	-	-	-	-	-	4	-	-	-	-	2	2	-	4	7	4	5	1	5	3	8	-	-	1	-	-	46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서울시 전체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3.12.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합 계	자치구				의료기관				
	소계	보건소내	임시 선별진료소 및 상담소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소계	국가 지정	지역 거점	국공립 병원	민간 병원
90	51	38 ¹⁾	9 ²⁾	4	39	5	6	7	21

1) (추가 5개소) 동대문, 동작, 성동, 용산, 중구, (감소 1개소) 노원구

2) (임시선별진료소 추가 2개소) 마포구 홍대, 서강대, (상담소 추가 1개소) 광진구 세종대

●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3.12.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현황		세부현황		
설치 (A+B+C)	검체채취 가능 (A+B)	보건소 내 (A)	보건소 외 (B)	상담소 (C)
47	41	38 ¹⁾	3 ²⁾	6 ³⁾

1)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은평,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동구 보건소 내 2개소 운영 (13개구 총 26개소)
그 외 자치구는 1개소 운영 (12개구 총 12개소)

2) 보건소 외 선별진료소 운영: 홍대, 서강대,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앞

3) 코로나19 상담소 운영: (2개소) 광진구, (1개소) 중구, 금천, 동작, 관악구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2.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진료		검체		X-ray	
	계	누계	계	누계	계	누계
3.10(화)	2,142	39,818	1,683	22,655	8	998
3.9(월)	1,834	37,602	1,271	20,970	7	990
증감현황	308	-	412	-	1	-

※ 누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전일 18시 보고 이후의 건수가 익일 누계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임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2.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3.10(화)	3.11(수)	누계	3.10(화)	3.11(수)	누계	
계	2,141	2,042	39,314	1,299	1,280	20,579	
국가지정	523	329	7,429	347	210	3,487	
지역거점	261	331	6,226	237	272	4,283	
국공립병원	203	216	2,604	115	106	1,839	
민간병원	1,154	1,166	23,055	600	692	10,970	

● 차량이동식(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2. 10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3.10(화)	3.11(수)	누계	3.10(화)	3.11(수)	누계	
계	176	259	1,786	156	225	1,505	
은평병원	22	25	294	21	22	280	3.3.개소
舊소방학교	24	48	356	18	38	220	3.3.개소
잠실주경기장	58	92	749	45	71	623	3.3.개소
이대서울병원	72	94	387	72	94	382	3.5.개소

※ 이대서울병원은 주말에 차량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음. 향후,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주 단위 비교예정

●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 국내 확진자는 7,869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114명 추가)이며, 이 중 333명이 격리해제 보고됨.
- 사망자는 66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6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0.84%으로 확인됨.
- 전국적으로 **약 80.1%는 집단발생(cluster)과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및 조사·분류 중인 사례는 약 19.9%임.
- * 전체 확진 사례 중 신천지 관련 집단발생은 4,759명(60.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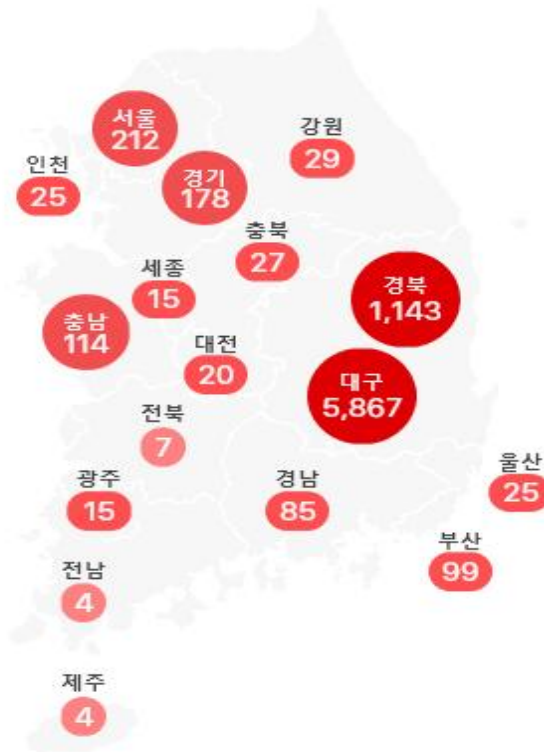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3.12.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3.11.(수) 0시 기준	222,395	7,755	288	7,407	60	214,640	18,540	196,100
3.12.(목) 0시 기준	234,998	7,869	333	7,470	66	227,129	17,727	209,402
증감	12,603 (5.4%)	114 (1.4%)	45 (13.5%)	63 (0.8%)	6 (9.1%)	12,489 (5.5%)	Δ813 (Δ4.6%)	13,302 (6.4%)

- 새롭게 확진된 환자 114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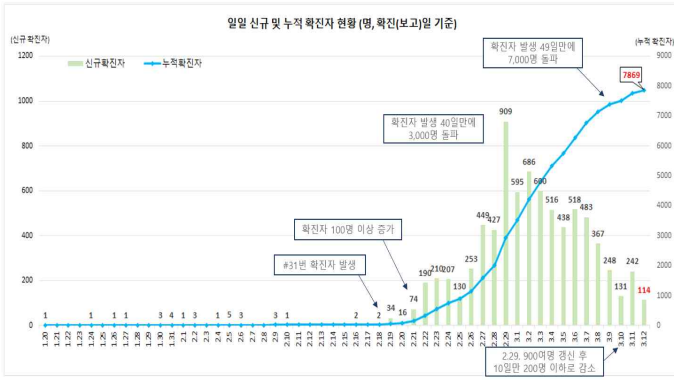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격리 중	7,470	174	70	5,705	21	11	18	22	15	150	22	23	109	5	3	1,044	75	3
격리 해제	333	38	29	114	4	4	2	3	-	27	6	4	5	2	1	83	10	1
사망	66	-	0*	48	-	-	-	-	-	1	1	-	-	-	-	16	-	-
합계	7,869	212	99	5,867	25	15	20	25	15	178	29	27	114	7	4	1,143	85	4
증감	114	19	1	73	-	-	2	-	5	3	-	-	2	-	-	8	-	-

* 사망자 1명 지역간 소관 이관(부산→대구)에 따라 변경



국내 확진자 분포 현황

– 국내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2020.3.12. 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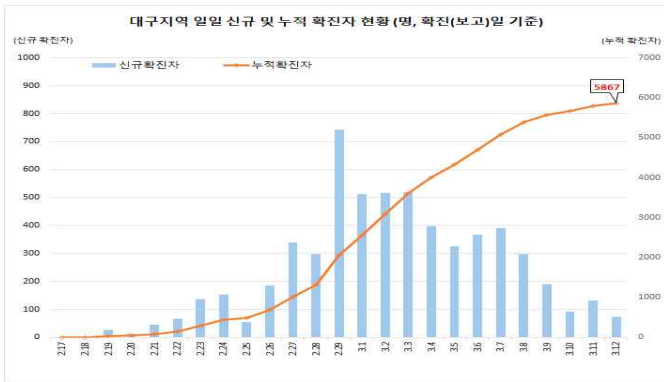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추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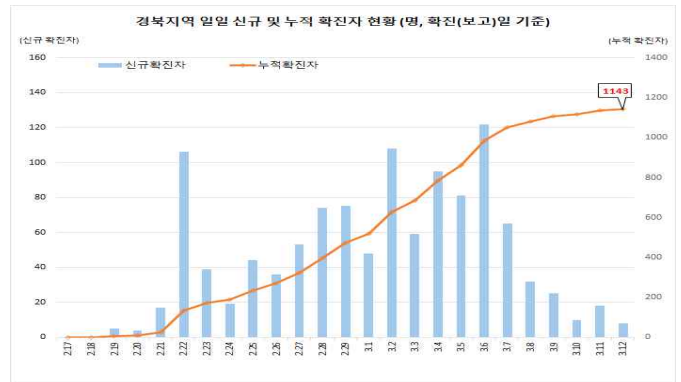
* 금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7,869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최근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양상을 보임.

* 일별 신규 확진환자 수는 지난 9일 이후 100~200명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대구·경북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2020.3.12. 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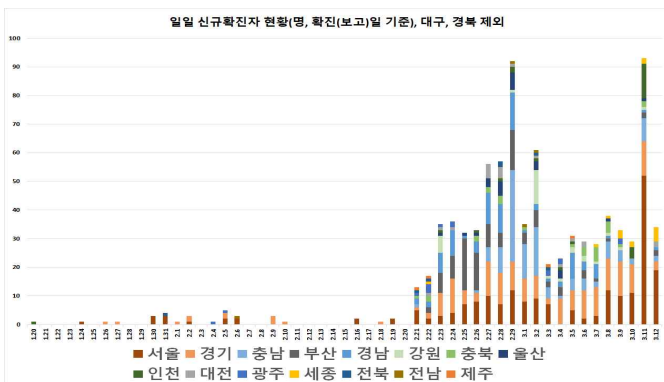
대구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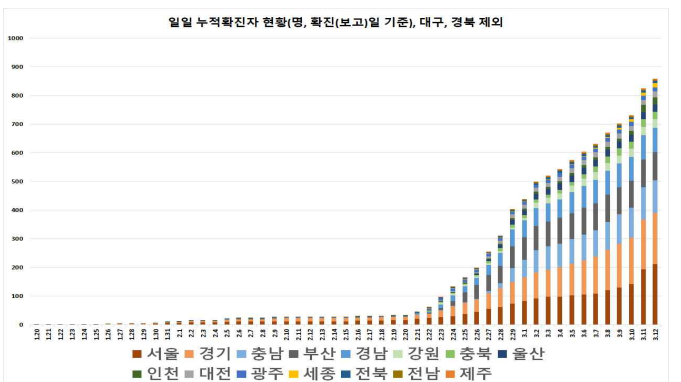
경북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신천지 신도 대상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전국 코로나 환자의 급속한 증가세를 이끌었던 대구·경북지역은 초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 * 전국 요양시설 종사자 중 코로나19 선별검사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종사자가 1,363명 추가 확인되어 즉각 전수조사 및 사후관리 실시하도록 조치함.
 - 이 중 검사실시한 291명 중 23명은 현재 양성 판정을 받아 해당 시설 조사 및 방역소독 실시함.

–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일별/누적 확진자 현황 (2020.3.12. 00:00 기준)



대구·경북지역 제외한 일일 신규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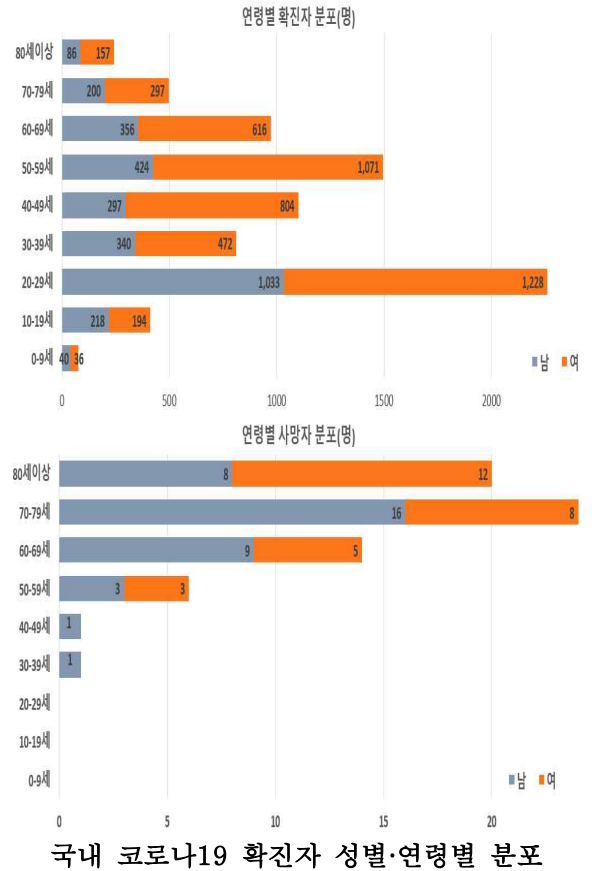
대구·경북지역 제외한 일일 누적 확진자 현황

- *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한 국내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구로콜센터와 분당제생병원 등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3차 피크'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1차: 첫 환자 발생 → 2차: 대구경북 환자 급증).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020.3.12. 0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

구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7,869 (100.0)	66 (100.0)	0.84
성별	남성	2,994 (38.0)	38 (57.6)	1.27
	여성	4,875 (62.0)	28 (42.4)	0.57
연령	80세 이상	243 (3.1)	20 (30.3)	8.23
	70-79	497 (6.3)	24 (36.4)	4.83
	60-69	972 (12.4)	14 (21.2)	1.44
	50-59	1,495 (19.0)	6 (9.1)	0.40
	40-49	1,101 (14.0)	1 (1.5)	0.09
	30-39	812 (10.3)	1 (1.5)	0.12
	20-29	2,261 (28.7)	0 (0.0)	–
	10-19	412 (5.2)	0 (0.0)	–
	0-9	76 (1.0)	0 (0.0)	–



* 국내 확진자는 7,869명, 사망자는 66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치명률은 0.84%로 확인됨.

✓ 성별 분포 현황

- * 성별로는 확진자에서 여성이 4,875명(62.0%)으로 남성 2,994명(38.0%)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사망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38명(57.6%)으로 여성 28명(42.4%)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성별에 따른 치명률은 2,994명의 확진자 중 38명이 숨진 남성에서 1.27%로 여성 0.57%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임.

✓ 연령별 분포 현황

- * 확진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2,261명(28.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0대 1,495명(19.0%), 40대 1,101명(14.0%), 60대 972명(12.4%) 순으로 나타남.
- * 사망자의 경우 확진자의 연령대와는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58명(87.9%)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연령대별 치명률은 243명의 확진자 중 20명이 숨진 80세 이상이 8.23%, 70대가 4.83%로, 여전히 7080 고령층에서 높은 치명률을 보임.

– 국내 코로나19 인구비례 확진자수 (2020.3.12. 00:00 기준)

지역	확진자수	(%)	사망자	치명률	발병률	지역	확진자수	(%)	사망자	치명률	발병률
서울	212	(2.69)			2.18	경기	178	(2.26)	1	0.56	1.34
부산	99	(1.26)			2.90	강원	29	(0.37)	1	3.45	1.88
대구	5,867	(74.56)	48	0.82	240.80	충북	27	(0.34)			1.69
인천	25	(0.32)			0.85	충남	114	(1.45)			5.37
광주	15	(0.19)			1.03	전북	7	(0.09)			0.39
대전	20	(0.25)			1.36	전남	4	(0.05)			0.21
울산	25	(0.32)			2.18	경북	1,143	(14.53)	16	1.40	42.93
세종	15	(0.19)			4.38	경남	85	(1.08)			2.53
						제주	4	(0.05)			0.60
						총합계	7,869	(100.0)	54	0.84	15.18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 발병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 전 세계 발생 현황

- 6,974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126,371명(전일 대비 5.84% 증가)으로 보고됨.
- 이 중 4,635명(330명 추가) 사망하여 치명률은 3.67%로 확인됨.
- 발생국가 및 지역 112개에서 114개(*온두라스, 코트디부아르)로 증가됨.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12. 16:00) (출처) 위키피디아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수	사망자수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수	사망자수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수	사망자수
1	중국	80,796	3,169	40	슬로베니아	57	0	79	룩셈부르크	7	0
2	이탈리아	12,462	827	41	필리핀	49	2	80	북마케도니아	7	0
3	이란	9,000	354	42	대만	48	1	81	튀니지	7	0
4	한국	7,869	66	43	루마니아	47	0	82	모로코	6	1
5	프랑스	2,281	48	44	사우디아라비아	45	0	83	키프로스	6	0
6	스페인	2,277	55	45	아일랜드	43	1	84	몰타	6	0
7	독일	1,966	3	46	베트남	39	0	85	도미니카공화국	5	0
8	미국	1,29	38	47	인도네시아	34	1	86	뉴질랜드	5	0
9	스위스	652	4	48	폴란드	31	0	87	파라과이	5	0
10	일본	639	16	49	팔레스타인	30	0	88	세네갈	4	0
11	노르웨이	629	0	50	러시아	28	0	89	방글라데시	3	0
12	덴마크	516	0	51	조지아	24	0	90	리투아니아	3	0
13	네덜란드	503	5	52	칠레	23	0	91	폴도바	3	0
14	스웨덴	500	1	53	코스타리카	22	0	92	캄보디아	3	0
15	영국	459	8	54	알제리	20	0	93	볼리비아	2	0
16	벨기에	314	3	55	파키스탄	20	0	94	부르키나파소	2	0
17	카타르	262	0	56	아르헨티나	19	1	95	카메룬	2	0
18	오스트리아	246	0	57	크로아티아	19	0	96	온두라스	2	0
19	바레인	195	0	58	세르비아	18	0	97	자메이카	2	0
20	싱가포르	178	0	59	오만	18	0	98	나이지리아	2	0
21	말레이시아	149	0	60	에콰도르	17	0	99	스리랑카	2	0
22	호주	139	3	61	에스토니아	16	0	100	안도라	1	0
23	홍콩	130	3	62	알바니아	15	1	101	아르메니아	1	0
24	캐나다	118	1	63	페루	15	0	102	부탄	1	0
25	그리스	99	0	64	파나마	14	1	103	콩고민주공화국	1	0
26	이스라엘	97	0	65	헝가리	13	0	104	코트디부아르	1	0
27	체코	94	0	66	남아프리카공화국	13	0	105	요르단	1	0
28	아이슬란드	90	0	67	벨라루스	12	0	106	리히텐슈타인	1	0
29	아랍에미리트	74	0	68	멕시코	12	0	107	모나코	1	0
30	쿠웨이트	72	0	69	아제르바이잔	11	0	108	몽골	1	0
31	이라크	71	7	70	브루나이	11	0	109	토고	1	0
32	브라질	69	0	71	슬로바키아	10	0	110	터키	1	0
33	레바논	68	2	72	라트비아	10	0	111	우크라이나	1	0
34	이집트	67	1	73	마카오	10	0	112	바티칸시국	1	0
35	산마리노	66	3	74	콜롬비아	9	0	113	네팔	1	0
36	핀란드	65	0	75	몰디브	8	0	114	일본크루즈	696	7
37	인도	62	0	76	불가리아	7	1		합계	126,371	4,635
38	포르투갈	61	0	77	아프가니스탄	7	0			치명률 3.67%	
39	태국	59	1	78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7	0				

✓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전 세계 114개국에서 보고된 118,000여 건 중 90% 이상이 단 4개국에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크게 감소하고 있음.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	발병률
전 세계	118,326	4,292	3.63	1.52
중국	80,955	3,162	3.91	5.63
중국 외 국가	37,371	1,130	3.02	0.59
서태평양	8,884	76	0.86	
유럽	18,130	717	3.95	
동남아시아	159	2	1.26	
중동	8,578	300	3.50	
아메리카	941	128	2.98	
아프리카	39	0	0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	발병률
1	이라크	71	7	9.86	0.18
2	이탈리아	12,462	827	6.64	20.62
3	아르헨티나	19	1	5.26	0.04
4	산마리노	66	3	4.55	195.35
5	이란	9,000	354	3.93	11.00
6	중국	80,796	3,169	3.92	5.80
7	레바논	68	2	2.94	0.99
8	인도네시아	34	1	2.94	0.36
9	미국	1,329	38	2.95	0.41
10	한국	7,869	66	0.84	15.24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발병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11.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12. 16:00 기준)
 (출처) [위키피디아](#)

81개국은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57개국이 10건 이하를 보고한 상태임.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영향을 받는 국가의 수가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감염 예방, 사망자 수 감소 및 최소한의 영향을 위한 국가의 전략
 - 먼저 준비하고 기다리기/발견, 보호, 치료/전파 감소/혁신과 교육
 (출처) [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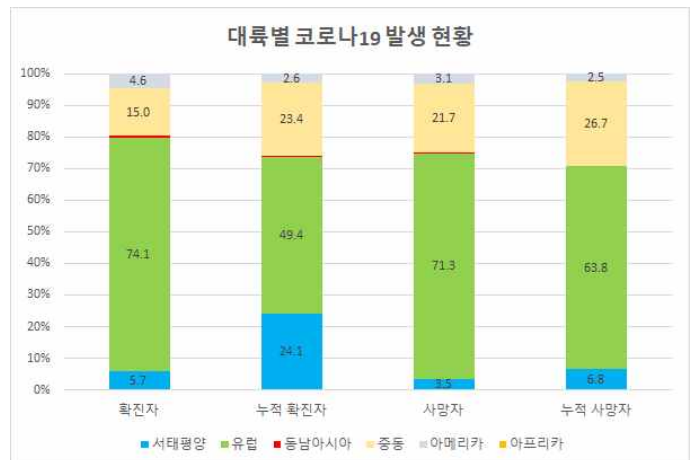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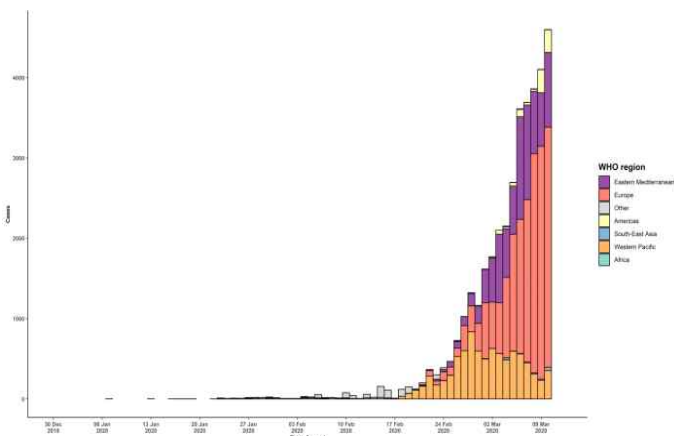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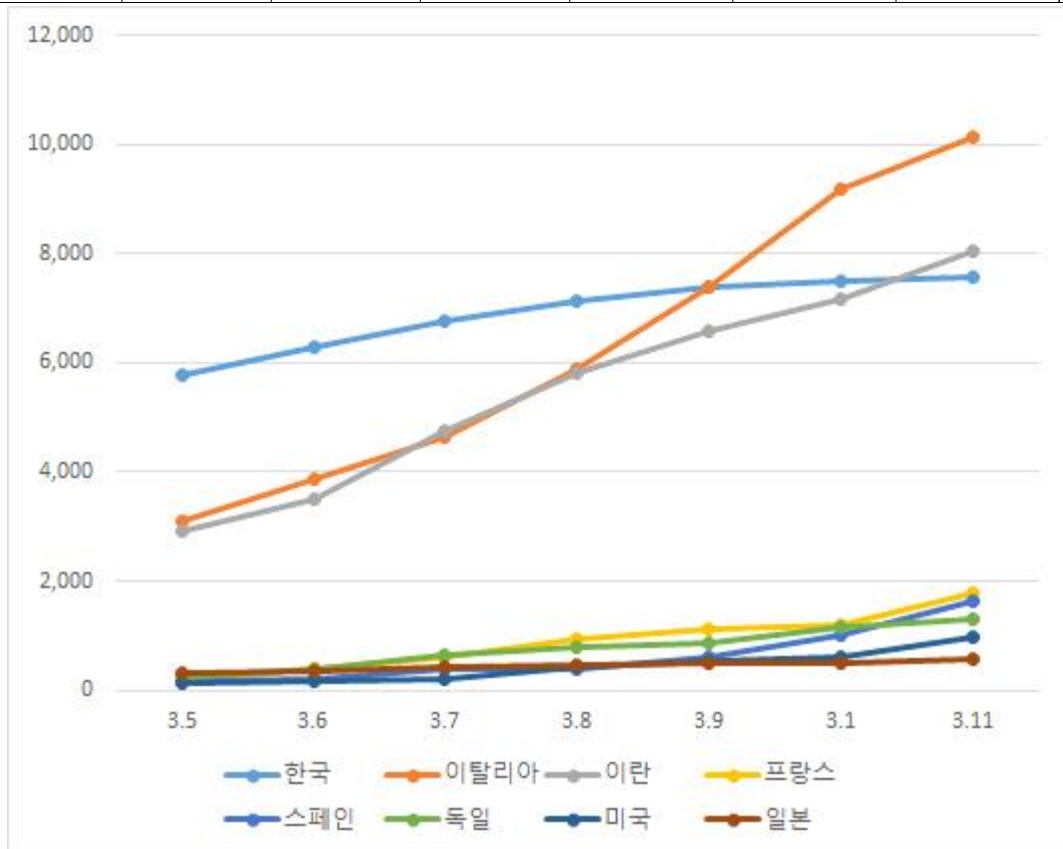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현황 (출처)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 중국 외 국가별 발생 현황 (2020. 3. 11.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확진환자 37,371명(전일 대비 4,596명 추가, 14.0% 증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 1,130명(전일 대비 258명 추가)로 보고되어, 중국 외 국가의 치명률은 3.02%(전일 2.66%)확인됨.

국가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
	3.5	3.6	3.7	3.8	3.9	3.10	3.11	
이탈리아	3,087	3,858	4,636	5,883	7,375	9,172	10,149	631
이란	2,922	3,513	4,747	5,823	6,566	7,161	8,042	291
프랑스	212	377	613	949	1,126	1,191	1,784	33
스페인	151	200	374	374	589	1,024	1,639	35
독일	240	400	639	795	847	1,139	1,296	2
미국	142	158	213	436	537	605	959	28
일본	317	349	408	455	488	514	568	12
중국가수	79	83	87	91	96	99	103	
총환자수	89,258	91,429	94,978	98,396	101,780	105,687	109,915	
총사망자수	3,246	3,339	3,436	3,541	3,758	3,939	4,224	



중국 외 지역의 유행 곡선 (2020. 3. 11.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중국 발생 현황

- 중국 확진환자 발생 현황

- * 80,793명(전일 대비 15명 추가, 0.02%증가)으로 보고됨.
- * 사망자 3,169명 (전일 대비 11명 추가)으로 치명률 3.92%로 확인됨.
- * 베이징 확진자 - 5명은 이탈리아, 1명은 미국에서 입국하여 발생
- * 상하이 확진자 - 이탈리아에서 온 중국인 2명

중국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12. 9: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확진자수	사망자수
3.11.(수) 9시 기준	80,778	3,158
3.12.(목) 9시 기준	80,793	3,169
증감	15	11

중국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 3. 11.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지역	인구수 (10,000s)	일일현황			누적현황	
		확진 환자 수	의심 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 환자 수	사망자 수
후베이성	5,917	13	6	22	67,773	3,046
광둥성	11,346	0	1	0	1,353	8
허난성	9,605	0	0	0	1,272	22
저장성	5,737	0	0	0	1,215	1
후난성	6,899	0	0	0	1,018	4
베이징	2,154	6	2	0	435	8
상하이	2424	2	18	0	344	3
홍콩	745	5	0	0	120	3
대만	2359	2	0	0	47	1
마카오	66	0	0	0	10	0
기타	103,995	3	4	0	7,545	66
총 합	148,823	31	31	22	80,955	3,162

2. 정책 동향

서울시

서울소식 내 세소식, 보도자료, 소셜시장실 및 서울시 내부문건 기반으로 작성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코로나19’ 문화생활 거리두며 즐기자...지친 시민 위로할 온라인 무료 공연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온라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소개
- 서울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돈화문국악당의 온라인 음악회부터 서울시립미술관,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온라인 전시해설까지 집에서 안전하게 공연, 전시를 즐길 수 있음
 - * 온라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은 3월 13일(금)부터 서울시 홈페이지(news.seoul.go.kr/culture)를 통해 한 눈에 확인 가능
- 공연 뿐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의 전시도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음
 - * 서울시립미술관,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등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전시해설 영상 또는 실제 전시실에서 전시 중인 영상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함
- 이 외에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11,000여종의 전자책과 150여종의 오디오북 등 30,000여종의 디지털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음
- 서울문화재단 유튜브에서는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원작자 김탁환의 역사소설 ‘이토록 고고한 연애’를 토대로 만든 웹판소리 <달문> 영상 등 14편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3월 온라인 생중계 문화예술프로그램 현황

분류	프로그램명	개별 게재 매체	게재 일정
클래식	서울시립교향악단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콘서트	- 서울시립교향악단 유튜브 (@서울시립교향악단) - 서울시립교향악단 페이스북(@SPO)	3.13.(금) 15:00
오페라	서울시오페라단 오페라 토크 <로시니>	- 네이버 TV - 세종문화회관 유튜브(@세종문화회관)	3.31.(화)
국악	<운당여관 음악회>, -입과손스튜디오- <창작 판소리 눈대목>	- V LIVE ‘방구석클래식’ (channels.vlive.tv/EC8255) - 서울돈화문국악당 페이스북 (@sdtt.or.kr)	3.19.(목) 19:30
	<운당여관 음악회> <25현 가야금 콘서트. 서정민 음악 접근하기>		3.20.(금), 19:30
	<운당여관 음악회> 장서운 <사적인콘서트 ‘사심가’>		3.21.(토), 19:30
	<운당여관 음악회> 불세출 <불세출>		3.22.(일), 19:30
	<운당여관 음악회> 장명서 <message2>		3.26.(목), 19:30
	<운당여관 음악회> 황진아 <The Middle>		3.28.(토), 19:30
	<운당여관 음악회> 음악그루 나무 <Song of Willow>		3.29.(일), 19:30
공연	2019 세종체임버시리즈II <세종솔로이스츠>	2019~2020년 공연 실황 영상 - 세종문화회관 유튜브 (@세종문화회관)	3.16.(월)~
	2019 세종체임버시리즈III <앙상블 오푸스>		3.18.(수)~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2020 신년음악회>		3.20.(금)~
	세종어린이시리즈 <모차르트와 모짜렐라의 마술피리 이야기>		3.16.(월)~
	세종어린이시리즈 <베토벤의 비밀노트>		3.23.(월)~
	2019 예술단 통합공연 <극장 앞 독립군>		3.23.(월) ~4.30.(목)

* 모든 공연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게재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서울시, 알바, 일거리 중단... '코로나19' 타격 청년들 긴급지원

- 서울시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중단된 노동안전망 밖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시리즈로 추진함
 - *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신청을 받아 '청년수당'(월 50만 원)을 긴급 지급하고, 청년 프리랜서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선정해 최대 1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신속 지원함
 - * 요식업계 청년 소상공인이 판매음식을 도시락(가정식) 형태로 자치구에 납품하고, 자치구가 이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돌봄공백을 메우는 사업도 추진함
-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청년 긴급지원 사업」 4개 시리즈를 각 사업 일정별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을 당부함
 - *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청년포털(youth.seoul.go.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청년수당 긴급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일하던 단기근로(아르바이트, 시간제, 일용직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1.20.~3.20.)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 19세~34세)의 신청을 받아 지원함
 - * 신청기간은 3월9일(월)부터 20일(금)까지
 - * 올해 청년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 긴급 지원

2.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 사업

- 사업 연기, 발주 취소 등으로 일거리가 중단된 프리랜서(디자이너, 강사, 작가 등)를 지원하는 동시에,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창작 콘텐츠를 개발하는 새로운 유형의 프로젝트
 - *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활용해 감염병 재난상황 속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강사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프리랜서 작가를 활용해 재난상황 속 일상 시민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 하는 등 기획이 가능
 - * 26일까지 공모신청, 공모는 대표자가 만 19~39세인 법인, 기업, 단체,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3.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청년 소상공인의 매출감소를 보완하는 동시에, 복지관 임시휴관으로 인한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메우는 윈윈(win-win) 전략
 - * 자치구가 중심이 돼 청년 소상공인이 납품하는 가정식 도시락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 도시락 전달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 서울시는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 각 자치구는 3월 중 청년 소상공인과 수혜 대상자를 발굴·선정해 추진

4. 청년 크리에이터 활용 유치원·초등학생 체험수업 콘텐츠 제작·방송

- 활동 기회가 줄어든 10명의 청년 크리에이터는 개학 연기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마술, 노래, 댄스 등을 배울 수 있는 체험수업 콘텐츠 <방구석 배움교실>을 개발·제작함
- 마술사, 뮤지션, 무용수 같은 각 전문 분야의 크리에이터 10명과 TBS교통방송이 협력해 제작·방송됨
-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서울혁신파크 내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단체의 사용료 납부 기한 연장과 관리비 한시적 감면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임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함
 - * 콜센터 등 근무 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등에서 집단발생이 증가하여,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절차와 조치 사항 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임
-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각 부처별로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게 됨
 - *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침방울(비말) 또는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이 그 대상
 - *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각 부처가 소관 사업장·시설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주요 내용

1.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내 감염 관리 체계 구축

-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팀장급 이상)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함
 - * (근무자 관리) 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사업장 환경관리) 사업장 내 위생 물품 비치 파악 등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사업장 내 감염 예방 관리 강화

- 직원 및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
- 사업장 내에 손 세정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며, 공기 정화를 위해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3.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이용자 및 방문객이 사업장으로 들어올 때 체온 확인을 실시
-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
-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대해 휴가 등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함

4.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은 삼가야 함
-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m 이상 확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해야 함
-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은 교차하여 실시하며, 식사 시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함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의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
- 불요불급한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

5. 사업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 의심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로 이송 시까지 격리공간에 대기 조치
 - * 검사 실시한 의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 의심환자를 보건소로 이송한 후에는 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에 대한 소독 실시

●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 확대 계획

- 정부는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힘
-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며,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경유(두바이, 모스크바 등)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함
 - * (3. 4.~3. 11. 확진자 수 변화) 프랑스(130→1,402명, 약 10.8배 증), 독일(196→1,139명, 약 5.8배 증), 스페인(150→1,024명, 약 6.8배 증)
 - * 확대된 특별입국 절차는 3월 15일(일) 0시부터 적용됨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 현황

현 행	확 대(3.15.0시부터 적용)
중국(2. 4.~), 홍콩·마카오(2. 12.~) 일본(3. 9.~), 이탈리아·이란(3. 12.~)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 경유자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및 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옴
 - * (2.4일 이후) 누적 총 3,432편의 항공·항만, 122,519명 대상 특별입국 실시 (3.10일 기준)
-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 직접 확인
 - * 이들은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도록 하게 하며,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짐

● 생활치료센터 현황 및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2일 오전 8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총 14개소에 총 2,470명의 경증 환자 입소했다 밝힘
 - * ①대구1(중앙교육연수원) 128명, ②대구2(경북대학교 기숙사) 368명, ③경북대구1(삼성인력개발원) 209명, ④경북대구2(농협교육원) 186명, ⑤경북대구3(서울대병원인재원) 106명, ⑥경북대구4(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집) 67명, ⑦경북대구5(대구은행연수원) 45명, ⑧경북대구7(LG디스플레이기숙사) 305명 ⑨경북대구8(현대자동차연수원) 260명, ⑩경북1(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 연수원) 57명, ⑪충남대구1(우정공무원교육원) 306명, ⑫충북대구1(건보공단 인재개발원) 109명, ⑬충북대구2(연금공단 청풍리조트) 155명, ⑭전북대구1(삼성생명 전주연수소) 169명, ⑮충북대구3(기업은행 종합연수원) 입소 중
- 전일 대비 센터에는 177명(병원에서 3명, 자택에서 174명 입소)이 추가 입소, 폐렴, 호흡 곤란 등 증상 악화를 보이는 입소자 11명은 센터에서 병원으로 이송하여 집중적인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함
 - * 대구1센터(중앙교육연수원)에서 31명, 경북대구2센터(농협교육원)에서 16명이 완치자로 판정, 격리 해제되어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108명이 완치되어 퇴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 및 격리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생활치료센터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힘
 -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을 통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학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지정하여 기존에 제공하던 심리지원서비스 외에도 정신과적 전문 상담 제공
 - * 모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왓차플레이)에서 제공하는 1개월 무료이용권 배포를 마쳐 입소생활 동안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3월 12일 오후, 충북대구3센터(충주 기업은행 종합연수원, 정원 179명) 추가 개소, 경증환자 새로 입소할 예정이며, 인천길병원이 의료지원 전담병원으로 참여, 의료진 파견으로 안정적인 의료 모니터링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 기존 참여 병원: 경북대병원, 강북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순천향대병원, 인천한림병원, 일산병원, 강원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북대병원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치료센터가 위치한 각 시도마다 지방의료원과 종합병원 등 단계별 연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센터 입소 환자의 증상 악화 시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체계 개선함
 - * 경증환자가 센터에 입소하는 점을 감안, 센터 소재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연계 의료기관 지정 (총 14개 센터 중 환자를 이송한 지역과 센터 소재 지역이 다른 경우는 11개소)

●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을 위한 병원장 간담회 개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과 진료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장, 대학병원장 및 종합병원장 대상 간담회 개최 예정

* 병원장 간담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대학·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과 1총괄조정관 주재로 연이어 네 차례 개최

간담회 개최 일정

회차	대상(개)	일시	주재
1	수도권 상급종합병원(18)	3.12.(목) 14시, 서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2	수도권 대학·종합병원(23)	3.13.(금) 14시, 서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3	비수도권 상급종합(14)	3.16.(월) 14시, 세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4	비수도권 대학·종합병원(20)	3.17.(화) 14시, 세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총괄조정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환자관리반을 설치토록 권고

* ① 환자 관리반(의사 포함)의 신속한 환자 분류 작업, ② 중증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이송,

③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함으로써 중증환자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체계를 갖추

- 중증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2월 28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병상 확충을 협의하였으며, 3월 중 254병상을 추가 확충하기로 함

- 병원장 간담회에서는 국립대병원 외 중증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전국 75개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병상 추가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의료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눌 예정

Coronavirus COVID-19: Facts and Insights

■ COVID-19 Epidemiological information

Impact to date¹

- >105,000** Reported confirmed cases
- >3,500** Deaths
- 102** Countries/territories affected²
- 43** Number of new affected countries/territories in the last 7 days
- 53** Countries/territories with evidence of local transmission³
- 17** Countries/territories with at least 100 reported cases⁴
- ~5%** New reported cases are in China in the last 7 days
- ~74%** New reported cases are in South Korea, Italy and Iran in the last 24 h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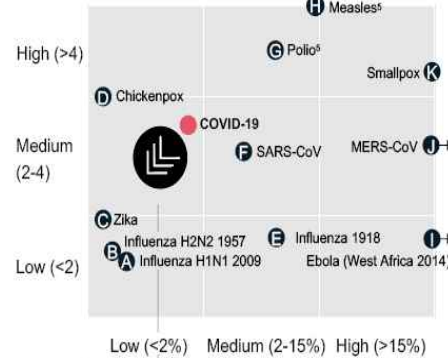
Features of disease to date⁵

- 1.5-2x** Higher transmission compared to the flu
- Up to 20%** Patients have severe disease
- <1/40** Patients die; fatality rates are significantly lower outside Hubei⁶

Comparison to other diseases

Reproduction number⁷

The average number of individuals infected from each infected individual



Early identification of the disease, intensification of viral control methods, and deployment of treatments (when available) will drive down the reproduction number and reduce case fatality

Latest as of March 9, 2020
Global considerations

- 지난 7일 동안 43개의 새로운 countries/territories에서 COVID-19 사례 급증(총 발생국 102countries/territories)
-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countries/territories 매일 증가 추세(지난 7일동안 매일 5개국 이상 증가)
- 지난 24시간 내에, 이탈리아와 이란의 보고된 확진자 5,000명 넘어섬
- 현재 확진자 증가 중심지인 이탈리아, 이란, 미국의 감염병 확산 억제 역량이, 다음 주 감염병 확산 추이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임

China(outside Hubei)

- 지난 7일동안 COVID-19 증가추세 낮게 유지 됨; 백만명당 1건 미만
- 보고된 확진자 수 전체적 감소 추세

1. Latest numbers are available from a number of sources, including daily situation report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 Previously only counted countries; now aligned with new WHO reports; excluding cruiseship | 3. Previously noted as community transmission in McKinsey documents; now aligned with WHO definition.
 4. >=100 reported cases in China, South Korea, Japan, Singapore, Italy, Germany, France, Spain, Switzerland, UK, Netherlands, Belgium, Sweden, Norway, Austria, Iran and US
 5. Evidence on exact numbers are emerging, however expected to decrease as viral containment measures intensify and treatments are developed
 6. Case fatality numbers are reflective of the outbreak setting and depend on a number of factors, including patient's age, community immunity, health system capabilities, etc.
 7. In outbreak setting or at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ion of a new disease

■ Four major transmission complexes exist, with a fifth emerging

복합적으로 연결된 지역사회 감염 확인, >100 confirmed cases, 사람들 이동제한의 어려움

5 complexes with COVID-19 propagation

Deep economic integration and regular human and material movements mean that it will be tough to limit virus propagation within these complexes



Transmission complexes

	Trend ¹	Total cases ⁵	Total deaths ⁵
1 China complex: Mature propagation	Green arrow (down)	80,859	3,100
2 Asia (excl. China) – South Korea centered complex: Ongoing propagation	Red arrow (up)	8,021	61
3 Europe – Italy centered complex: Ongoing propagation	Red arrow (up)	9,456	255
4 Middle East ³ – Iran centered complex: Ongoing propagation	Red arrow (up)	6,180	149
5 Americas – USA centered complex: Early propagation	Red arrow (up)	347	12
6 Africa: Limited to no propagation ⁴	Grey arrow (right)	27	0

1. Indicating the trend in incremental reported cases per day | 2. Includes Western Pacific (excl. China) and South-East Asia WHO regions | 3. Eastern-Mediterranean WHO region
 4. <20 cases in Algeria and <5 cases in Senegal, Cameroon, South Africa, Nigeria and Togo | 5. Excludes Cruise Ship

Complex with mature/ on-going propagation

Complex with early propagation

COVID-19 China's context and case count growth ex-Hubei

China context

Population

1.4 bn with 11% over 65 years old¹

Population density

~3.3X higher population density in China compared to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¹

Respiratory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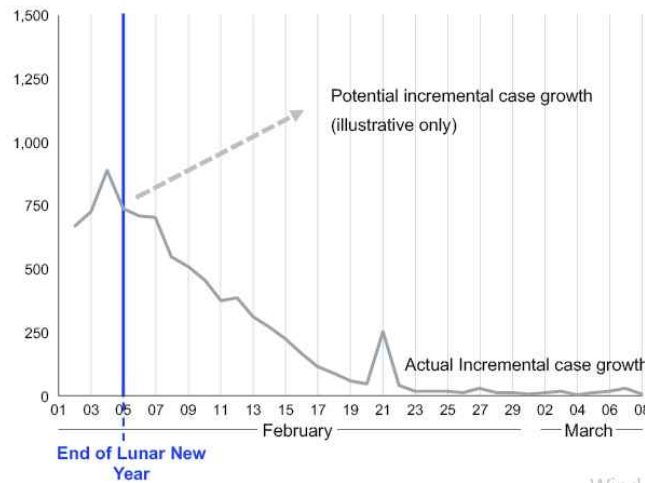
8.6% of adults have underlying respiratory issues (COPD)²

1.4X higher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pollution compared to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¹

Primary health system

5.6% of the doctors in township health centers had formal medical education in 2010 compared to 10% in 2017³

Daily incremental cases
China ex-Hubei, count



What we know

- 전파성
- 기저 질환이 있는 노인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What is being discovered

- 경증 사례 및 implied 사례 사망률의 범위
- 계절성
- 무증상 전파사례

1. World Bank Data 2. Koch et 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burden of the undiagnosed population at risk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n China, PMC Public Health (2019); Fang et al,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n China: a nationwide prevalence study. The Lancet Respiratory Medicine, 2018; 3. BMJ

전례 없는 COVID-19 확산 속도-그러나 공공보건의료 대응으로 확산 최소화 할 수 있음

- 밀폐된 공간에서 높은 전파율
- 확진자 중 많은 수가 무증상 혹은 경미한 증상자에서 발생
-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 대응이 춘절 이후 이동인구가 많았음에도 확진자 증가를 최소화 함

Diamond Princess cruise ship

overview	~3,700 Diamond Princess 크루즈 탑승 승무원 및 승선자 수
1 Feb	승객 중 6명, 출발 6일 후 COVID-19 양성 반응 보임
4 Feb	10명의 탑승자 COVID-19 양성 판정, 일본 당국 전체 선박에 대한 14일 격리 조치

Migration post-Lunar New Year

25 Jan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확산되며, 중국은 춘절을 맞이함
~3bn	일반적인 춘절 예상 여행 횟수

response

- 일본 당국 승객 PCR 검사; 양성 확진자 의료시설로 이송
- 유증상자 배에 머무름(증상 사라질 때까지)
- 일부 귀국 승객 양성 판정 받음

- 춘절 연휴 기간 연장
- 위험지역으로 여행다녀온 사람 14일 자가격리 조치
- 신속한 병원 신축
- 관광지 폐쇄, 공식 행사 취소
- 여행 제한 규정

impact

~700	보고된 COVID-19 확진자
~50%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된 사례 비율
7	COVID-19 사망자 수

754	2월 1일 확진자 증가 수, China ex-Hubei
376	2월 11일 확진자 증가 수, China ex-Hubei

향후 COVID-19 발생에 대한 세가지 시나리오

Potential scenarios as of March 9, 2020

Quick recovery

- 공공 보건의료체계의 대응은 중국에서와 유사한 효과
- 바이러스는 계절성을 지님
- 치사율은 감기와 비슷(또는 기존 치료 방식의 효과성 입증)
- 사회경제적 반응의 현지화
- 강력한 대응으로 초기 수요 감소, 그러나 정점에 빠른 도달
- 근로자들 일상 변화 그러나 빠른 회복
- 중국 큰 회복세
- 초기 소비자 수요 급감 후 상대적으로 빠른 반등
- 미국, 유럽 1분기 말까지 경제 둔화
- 중동 2분기 말까지 경제 둔화 및 일부 지역 혼란

Global slowdown

- 중국 대비 공공 보건의료체계 대응 효과 둔화
- 바이러스는 계절성을 지님
- 공공보건의료 대응에 따라, 치사율 감기와 유사하거나 높음
- 유럽과 미국 내 영향력 현지화
- 일상 생활의 변화
- 중국 큰 회복세
- 미국, 유럽 2분기 중반까지 경기 둔화 예상; 기타 지역에 다양한 영향 미침
- 일부 산업(ex.항공, 병원) 여름철 큰 타격
- 기타 산업 초기 감소, 2분기 말 회복

Global pandemic and recession

- 중국 대비 공공 보건의료체계 대응 효과 둔화
- 바이러스 계절과 상관없고, 북반구 봄철 감염확산 줄어들지 않음
- 보건의료체계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감기보다 높은 치사율
- 2분기, 3분기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추세
- 변화 된 일상의 일반화
- 중국의 회복, 새로운 확산 도래
- 미국, 유럽 반응의 일반화
- 전 세계 모든 지역 경기침체, 경기 둔화
- 3분기 말 또는 그 이후까지 소비자 신뢰 회복되지 않음

what you have to believe

how the scenario could evolve

A Once in a Century Pandemic?

세기의 전염병인가?

Bill Gates

○ 코로나19 사태 진단 : 코로나19는 세기의 전염병 수준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저소득 국가로의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선진국 공조를 통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됨

- 코로나19는 건강한 성인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치명적 바이러스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기저질환자들이 감염될 경우 훨씬 더 높은 치명률을 보이지만 건강한 성인의 1%도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순히 계절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비교해 봐도 수배 높은 치명률임
- 코로나19는 경증 및 무증상자 전염력도 가지고 있어 전염속도가 매우 빠름. 일반적인 중증의 급성호흡기 전염사례보다 10배 이상 높은 전염력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국가, 주,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부유한 나라들은 자국 시민을 위한 정책에서 더 나아가 저소득 국가들이 세계 유행병을 준비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음. 저소득 국가들은 취약한 경제적, 보건의료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유행 시 자국 내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저항할 수 없음

○ 해결 방향성 1 : 저소득 국가들이 일차의료 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원해주어야 함

- 일차의료기관, 숙련된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세계 유행병 대처를 위해 필수적인 자원들임. 일차의료 자원들은 유사시 역학조사 및 질병 특성을 조사할 수 있고, 지역 풍토병(endemic)을 조기에 발견하여 세계 유행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음
- 위 일차의료기관을 기반, 전 세계 질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서 실시간 유관기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국가 간 정보 공유 활동을 만들어야 함

○ 해결 방향성 2 :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제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생산 체계를 개발해야 함

<기술적 차원의 해결책>

-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같은 단백질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은 전통적 화학적 공정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과정임. 단백질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국제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대다수의 제약회사들이 단백질 신약을 가급적 적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을 달성해야 함
- 마찬가지로 이유로 기존의 항바이러스제의 효과를 검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해야 함

<외교적 차원의 해결책>

- 다자간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제적 협력과 자료 공유 체계를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함.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개발 과정은 수많은 임상 실험과 세계 국가별 상이한 특허권 제도의 조율과정 없이는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음
- 국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며, 위원회는 연구 우선순위와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후보들의 임상실험 절차(protocol)를 결정하는 기구로서 자리 잡아야 할 것. 이러한 플랫폼은 우선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개발(R&D) 기구로 구상할 수 있을 것.
- 전 세계 중증의 급성 호흡기 질환 및 응급 감염병 임상실험 협력단(consortium), 공동 연구 협력 네트워크도 함께 운영하여 위기 시 3개월 내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 역량 수준을 달성하도록 추진할 것

<재정적 차원의 해결책>

- 전세계적 유행병을 막기 위해 필요한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은 투자 대비 수익 창출을 보장할 수 없음(high risk). 때문에 민간 기업 차원에서 개발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 공적 재정을 투입하여야만 만들 수 있음.
- 더 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재(public goods) 성격을 갖는 제약 시설들을 설립하여 필요시에 백신을 대량생산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 위 제약 시설들은 평상시 일반적 항생제를 생산하다가 위기 시 백신생산시설로 가동할 수 있는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 결론 - 보편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세계 전염병 대응 전략 필요

- 전 세계 전염병 방지를 위한 노력은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피할 수 없을 것
- 최근 코로나19가 불러일으킨 세계 공급 체인과 주식 시장의 붕괴, 수많은 인명 피해 등의 가치 손실에 비교한다면 전염병 방지 투자의 비용 대비효과는 상상할 수도 없이 큼
- 백신과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된 이후 이 신약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하고, 가장 필요도가 높은 사람들의 손에 닿을 수 있어야 함. 단순히 시장원칙만으로는, 특히 세계 전염병 펜더믹(pandemic) 상황에서, 형평적 가치를 달성할 수 없음
- 이에 향후 세계 전염병 발생 빈도가 빨라지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급히 국제 공조 차원의 전략 개발이 필요함

Flatten the coronavirus curve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속도 완화전략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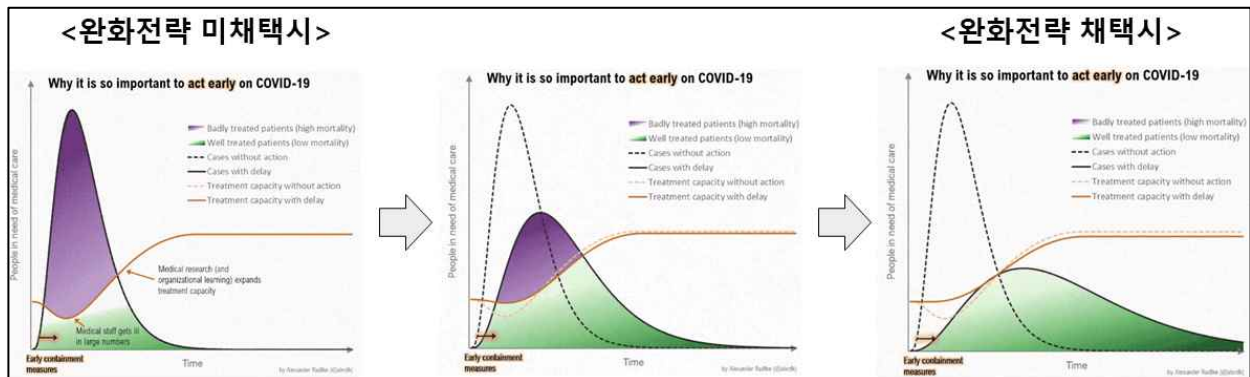
Alexander Radtke

○ 완화 전략 미채택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속도가 빠를수록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수도 폭증하게 됨.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서는 집중적 의료적 개입이 요구되기 때문임. 문제는 국가 내 의료적 자원 및 인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환자 폭증시 국가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통제 불능 상태가 발생한다는 것임
 - 완화전략 미채택 시 미치료 환자의 비중(첫 번째 그림 내 보라색 영역)이 증가함
- 국가 보건의료 체계 내 지나친 업무과다로 인한 인력 소진은 한시적 의료체계의 붕괴도 발생시킬 수 있음
 -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소진, 건강악화 등으로 인해 첫 번째 그림의 갈색 실선이 아래 방향으로 이동

○ 완화전략 채택시 얻을 수 있는 효과

- 코로나 전염속도를 늦추었을 때 국가 역량 내 가능한 모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됨(세 번째 그림 초록색 영역)
- 이 때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업무과다 문제 또한 없어지게 되므로 국가 내 보건의료 체계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음(세 번째 그림 갈색 실선의 상향조정)



- <보라색 환자 비율> 적절한 의료적 처지를 받지 못한 상태
- <초록색 환자 비율>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은 상태
- <갈색 실선> 국가 보건의료 체계 내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성

발생·치료 현황

● 코로나19 어제 하루 114명 추가 확진...총 7869명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하루 새 114명이 증가했다. 지난 2월 21일 하루 신규 확진환자 74명 이후 20일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869명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중 완치돼 격리해제된 환자는 45명 늘어난 333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환자 114명 중 대구(73명)·경북(8명) 발생 확진자가 51명으로 전체 71.1%를 차지했다. 그 외 서울 19명, 경기 3명, 인천 0명, 부산 1명, 대전 2명, 세종 5명, 충남 2명, 경남 1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중 사망자는 총 66명으로 나타났다. 전날 보다 6명이 추가 사망했다. 총 확진자(7869명) 대비 사망자(66명)로 계산한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84%다. 80대 치명률은 8.23%, 70대 4.83%, 60대 1.44%, 50대 0.40% 등 순이다. 20대와 10대에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003121039409492>)



● 정부세종청사서 코로나19 확진자 속출...유입경로 몰라 더 불안

정부세종청사 내 일부 부처에서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부부 공무원을 포함한 해양수산부(해수부) 직원 4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확진 공무원 가운데 보건복지부, 대통령기록관, 인사혁신처 직원의 감염경로는 확인됐다. 하지만 해수부 직원들의 감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 중앙부처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될 경우 국정 수행 차질까지 우려된다. 이춘희 시장은 청사 내에 별도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정부와 협력해 정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확산을 막고, 세종시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11111400063?input=1195m>)

● '구로 콜센터' 확진 102명...박원순 "제2신천지 우려 안해도 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에 입주한 메타애플랫폼 운영 콜센터와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밝혔다. 코리아빌딩 집단발병 관련 확진자는 서울 71명, 경기 14명, 인천 17명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확진자 중 11층 근무자가 많지만 다른 층 근무자도 있다며 "밤사이에 인천에 거주하는 9, 10층 직원 2명도 확진됐다"고 전했다. 그는 콜센터가 위치한 코리아빌딩과 인근 지역을 서울시 차원에서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주민은 전원 음성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잠복기일 수 있다"며 "전체를 폐쇄하는 노력과 다름없는 정도의 강도로 대응하겠다"고 '완전 폐쇄'에는 선을 그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12083253004?input=1195m>)

● **검사 안 받은 신천지 신자 1,300여명, 요양병원 등 근무**

전국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이단 신천지 신자 가운데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수가 1,3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선조치가 필요한 전국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전체 종사자 데이터와 신도 명단을 비교해 이를 선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이에 대해서는 즉시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병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분석작업을 거쳐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news/5305421>)

정책대응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코로나19' 추경, 상임위서 6조2천억원 증액요구...슈퍼추경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정무, 기획재정, 교육,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등 7개 상임위는 심사 과정에서 총 6조2천604억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에는 세출경정 14조8천202억원, 세입경정 3조2천억원 등 총 18조202억원을 두고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안(11조7천억원)보다 54%가량 늘어난 규모다.



복지위에서는 정부 원안(2조9천671억원)보다 1조6천208억원 증액한 4조5천879억원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용자금(5천억원), 의료기관 약국 격리시설 손실보상(4천60억원) 등도 편성됐다.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1천억원),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편성(195억원), 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5개소 구축 및 운영비 지원(120억원·1천80억원) 등도 포함됐다. 예결위는 오는 13일과 16일 예산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한 뒤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추진한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12081500001?input=1195m>)

● **정부 “수도권 1200개 병상 확보...생활치료센터 3300여명 정원으로 확충”**

정부가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늘어나자 수도권 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1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서울, 인천, 경기에서 어제까지 국공립 병원 등을 소개해 1200개 병상을 확보했고 계속 확충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진 환자는 모두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도 운영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주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센터를 개소하고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환자를 이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일단 1단계로 태릉선수촌에 200실 규모의 생활치료시설을 설치하고 16일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확산 추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9개 시설 1840실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각 시설 관리주체와 협의 중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통해 생활치료센터에 학회 소속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를 지정해 정신과적 전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3728382>)

● 코로나19 알바 끊기면 100만원 수당...서울시 '청년 긴급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끊긴 청년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기존의 단기근로직(아르바이트·시간제·일용직)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1월 20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실직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9~20일이지만 지원 규모가 500명 내외로 한정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시는 또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연기나 발주 취소 등으로 일거리가 중단된 프리랜서(디자이너, 강사, 작가 등)에게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청년 소상공인이 납품하는 가정식 도시락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업을 자치구 중심으로 벌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도시락 전달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개학 연기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생들이 마술, 노래, 댄스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체험수업 콘텐츠 '방구석 배움교실'을 청년 크리에이터 10명과 TBS교통방송이 협력해 제작하고 9~20일 방송한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view/AKR20200311183000004>)

● 평상시 병실 20% 비우는 감염병전문병원..."공공병원 활용해야"

최근 코로나19(COVID-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중부권·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및 지정 예산이 배정됐지만 평상시 전체 음압병실의 20%가량을 항상 비워둬야 해 민간 병원에서는 운영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료 수익을 통해 운영되는 민간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대기 병상을 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공공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귀결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및 지정 현실화 방안으로 시립의료원 등 기존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기존 공공의료기관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해 시설 및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감염병 전문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선 배후 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건이 갖춰진 곳을 찾아야 한다"며 "5개 권역에 여건이 충족되는 곳을 찾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현재까지 수도권의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의 조선대병원만 지정된 상태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68>)

● 코로나19, 의료진 보호장비 착용 교육 '절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항하기 위해 의료진이 일선에서 보호장비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의 보호장비 착용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 감염내과 방지환 교수(사진)는 메르스 이후 수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의 병원 내 확산 예방을 위해 의료진의 보호장비 착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11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2015 메르스 백서'에 따르면, 이러한 병원 내 감염 확산은 2차 이상 전파력이 낮다는 초기 가정의 오류와 함께 보호구 착용 등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훈련 부재가 상당부분 기인했다. 실제로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방지환 교수 연구팀이 메르스 당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수행한 횡단연구 결과에 의하면, 의료진 교육을 통한 상황별 필수 보호구 착용이 2차 감염 억제에 주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105>)

● IBS, 코로나19 음성 여부 4시간 만에 판별하는 방법 개발

기초과학연구원(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인지 교세포과학그룹 이창준 단장 연구팀은 11일 코로나19를 검출할 수 있는 프라이머 서열 아홉 세트를 개발해 공개했다. 프라이머를 이용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만 특이하게 존재하는 DNA 부위를 증폭할 수 있다. 검체 채취부터 결과 도출까지 시간은 4시간 이내, 비용은 15달러(한화 약 1만8천원)밖에 들지 않는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술(rt-PCR) 장비를 갖춘 생물안전 2등급 시설 어디서든 코로나19 음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11159500063?input=1195m>)

● 노벨상 경제학자 크루그먼 “코로나 대책, 정부가 국민에 직접 현금 줘야”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루그먼은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단기 부양책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현금을 쥐어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급여세 인하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이는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직접지원 방식을 통해 위기 대응에 나선 중앙 및 지방정부가 소비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득에 타격을 입은 초단기 임시직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점도 문제로 꼽는다. 미 경제학계에서는 한시적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하버드 공공정책대학원의 제이슨 퍼먼 교수는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의회가 미국 시민권자나 납세자인 모든 성인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10만원), 아동 1인당 500달러씩 주는 간단한 일회성 지급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 조치만으로는 경제를 부양하기에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그는 지적했다.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111228001)

● 코로나19 직격탄...한국 소비심리지수 낙폭, OECD 회원국 1위

12일 OECD가 집계한 2월 한국의 소비자신뢰지수(CCI)는 전달(100.0)보다 0.4포인트 하락한 99.6로 낙폭은 자료 집계가 완료된 OECD 25개국 가운데 가장 컸다. 한국의 소비심리가 OECD 회원국들 보다 더 더 빨리 얼어붙은 것은 중국과 인접한 데다 1월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 된 것이 2월 하순계부터여서 3월 CCI 지수 하락은 더 커질 것 이란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더라도 소비심리는 당장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휴업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손실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여파가 해소되더라도 이들은 충분한 구매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소비자신뢰지수(99.6) 수준 자체는 25개국 가운데 20번째로 낮다.

출처 :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312000060>)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집계하는 소비자신뢰지수(CCI) OECD 평균 CCI(검은선)와 한국의 2월 CCI(붉은선) (자료:OECD)

국제현황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WHO, 코로나19에 팬데믹 선언..."통제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공격적인 조치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여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각국에 더 많은 노력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여러 나라가 이 바이러스가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집단 감염이나 지역 전염이 벌어진 많은 국가들 앞에 놓인 도전은 그들이 (이런 나라들이 한 대처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할 의지가 있느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공중보건의 위기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로, 모든 부문과 개인이 싸움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비, 진단·방역·치료, 전염 차단,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취득 등을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12002153088?input=1195m>)

WHO,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 선포 사례

	1968 홍콩 독감	2009 신종 인플루엔자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H3N2	H1N1	COVID-19
발원지	홍콩	멕시코	중국 우한
사망자	100만명 이상(추정)	1만 8,500명	4,600명(112만 9천회)
증상	고열, 전신 근육통, 심한 피로감 유발	발열, 기침, 인후통, 무력감 등	고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경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분비물(비말) 접촉, 바이러스가 묻은 오염된 손 통해 감염	신종플루와 달리 현재 유행 및 치료제가 없고 검역기가 2~14일도 감염	
특징	전염성 매우 강함	38°C 이상의 고열없이 발생하기도 함	

바이러스 유행병의 규모 단계

집단발병 (아웃브레이크) → 유행병 (에피데믹) → 대유행병 (팬데믹)

질병 사례 수 증가 → 급격한 질병 사례 수 증가 → 많은 사람에게 대유행하는 단계

- ▶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나 범국가적으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 전염이 해당 지역 범위를 넘어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까지 확산
- ▶ 여러 국가 또는 대륙으로 광범위하게 퍼짐
- ▶ 일관적 감염경로를 보임, 동물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환경에서 발생
- ▶ 단기간에 사람간 전염의 영향력이 커짐
- ▶ 과거 대유행병 바이러스는 주로 동물이 퍼지기 원 경우가 많음

예시 → 계절성 독감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코로나19

자료: 세계보건기구(WHO) | 사진출처: 미국 질병예방본부 | 연합뉴스

● 북한도 마스크·소독제 비상...생산라인 풀가동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중국과 접경한 평안북도의 정주시에서는 원단과 의류공장들이 마스크 생산에 총동원됐고, 위생방역소와 의약품관리소에서는 소독약 생산을 늘려 모든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 거주구역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수도 평양에서는 비누공장들까지 각종 소독제품 생산에 투입됐다. 노동신문이 이날 공개한 룡악산비누공장 내부 생산라인 사진을 보면 분무형, 펌프형 등 다양한 형태의 소독제가 생산되고 있다. 황해북도 수안군에서도 "방역사업에 최대의 관심을 돌려 사소한 빈틈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의료기구와 방역 물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즉시 동원 가능하도록 구급차와 화물차 등 각종 이동수단도 상시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view/AKR20200311044600504>)



- 중국, 후베이성 신규 확진 8명...역유입 포함 총 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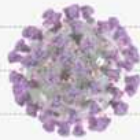
중국 정부가 해외 역유입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 나서면서 전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15명으로 줄었다. 중국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중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일 44명, 8일 40명, 9일 19명, 10일 24명, 11일 15명으로 확연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11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8만793명, 사망자는 3169명이다.

출처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49630&code=61131811&cp=ny>)

- '인구 60~70% 감염' 경고와 WHO의 "팬데믹 선언"

코로나19에 팬데믹 선언되기까지

2019년	
12월 31일	우한서 원인 불명 폐렴 환자 27명 발생
2020년	
1월 9일	우한 당국, 우한 폐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원인 발표, 첫 사망자 발생
11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원인 우한 폐렴 확진자 41명 공식 발표
14일	태국서 첫 해외 신종코로나 환자 확진
16일	일본서 첫 확진자 발생
20일	한국서 첫 확진자 발생 중국서 우한 외 지역 환자 발생, 베이징 2명, 광둥 선전 1명
21일	미국서 첫 확진자 발생
22일	WHO, 1차 긴급위원회 소집
23일	베트남서 2명 첫 확진 발생
24일	프랑스 당국, 첫 확진 발표, 유럽 대륙 첫 감염 사례
25일	캐나다서 첫 확진자 발생
28일	독일서 첫 확진자 발생
29일	핀란드 당국, 첫 확진 발표
30일	WHO, 3차 긴급위원회 소집 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2월 11일	WHO,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명칭 'COVID-19(코로나19)로 결정
26일	한국 국내 확진자 1천명 돌파, 사망 12명 브라질서 첫 확진자 발생, 두달 만에 전 세계 6대주·46개국으로 확산
28일	WHO, 코로나19 세계적 위험 수준 '매우 높음'으로 최고단계 격상
29일	중국 누적 확진자 8만735명, 사망자 3,119명
3월 11일	WHO 집계 전 세계 121개국서 확진자 12만4,909명, 사망자 4,585명 WHO, 코로나19에 팬데믹 선언



WHO는 감염증의 위험 수준과 확산 정도를 6단계로 평가한다. 1~3단계는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돼 국지적 감염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사람 간 전염이 일어나면 4단계로 대응이 격상되고 5~6단계는 사람 사이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상황을 뜻한다. 지구적인 유행병이 돼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 '팬데믹'을 선언하고 각국에 강력한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1968년 홍콩독감 때 WHO가 팬데믹이라 표현하긴 했으나 지금 같은 평가단계를 만든 것은 사스 이후인 2005년이다. 그후 공식 선언을 한 것은 2009년 신종플루 때가 유일하다. 그러나 지금도 어떤 질병에 얼마나 많이 걸려야 선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WHO에서 보건긴급사태를 담당하는 마이클 라이언 국장은 팬데믹 선언에 "수학 공식이나 알고리즘은 없다"고 했다. 다만 그 용어를 선택했을 때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안팎의 전문가들과 깊이 논의했다고만 설명했다. 100여개국으로 번지도록 팬데믹 선언을 미루자 'WHO가 중국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컸다. 그러나 그 때문에 결정이 늦어졌다고만 보기는 힘들다. 신종플루 때에는 WHO 사무총장이 중국의 마거릿 찬이었는데, 팬데믹을 선언했다가 엄청난 후폭풍을 맞았다. 과잉대응으로 제약업계의 공포마케팅에 편승했다는 비난 속에 진상조사위까지 꾸려야 했다. WHO가 이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데에는 그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결국 팬데믹을 선언한 것은 이탈리아 등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플루 팬데믹 선언이 비난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사후에 드러난 치명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코로나19는 반대일 수 있다. 치명률은 전체 감염자 중 사망자 비율을 가리킨다. '감염자'는 단순 확진자가 아니라 치료가 끝났거나 사망해 '종료된(closed case)' 경우에 한한다. 이 때문에 현 단계에서 코로나19의 치명률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WHO와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2% 선보다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1일까지 1만2000여명이 확진을 받았고 800명 이상이 숨졌다. 이란, 스페인, 프랑스의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다.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21059001&code=970100)

[기고]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배려’



코로나19에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 ‘왜 하필이면 내가 걸렸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매일 걱정 속에 사는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고, 외롭게 생활하는 자가격리자 또한 3만여명이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근무자들 또한 안전하지 않다. 확진자 숫자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이고 감염의 양상도 바뀌고 있다. 초기에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자가 쏟아져 나왔다면 지금은 병원, 요양원, 아파트, 사무실 등 지역사회 감염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나라 중에서 전

국민이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이고 의료비도 저렴하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가 생기고 있다. 사망자는 초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아무런 질환이 없는 환자에서도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감염자 중 사망자를 줄이는 정책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환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음압병실을 250개 이상 확보하고 병실이 부족해서 자가격리 중인 환자들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늘려가고 있다.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라 초기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그나마 다행이다.

동시에 의료계의 협조를 받아 한국형 코로나 예방 및 치료 지침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이미 140쪽에 달하는 ‘2019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지침: 예방, 관리, 진단과 치료’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폐쇄 공간에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에어로졸로도 전파될 수 있으며 열, 피로감, 마른기침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고 코막힘, 콧물, 인후통은 비교적 드물다고 자세히 설명한다.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이 나타나면 질병이 위중해져 치료가 어려워진다고도 기술되어 있다. 우리도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현재까지의 의학적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 세계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에 알리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감염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서 질병이 더 많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중증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아직 정확한 자료 분석이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감염자나 사망자가 일반 시민과 비교하면 사회경제 수준이 낮을 수도 있다. 역학 자료, 환자 정보 및 검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인구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인 수준에 따른 확진율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시각각 국민, 언론과 소통하기 바란다.

다만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확진자의 동선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다. 방문했던 장소나 이용한 교통수단 등의 정보 수집은 감염경로 파악과 추후 확산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집된 정보에 대한 처리는 더욱 철저해야 하고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확진자 동선 공개가 꼭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이제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되어 거의 모든 장소가 감염원이라고 간주해야 한다면 동선 공개로 얻을 추가 효과를 재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확산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사람,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직종에 있는 사람,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이나 지리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격리 상태에서도 정보 접근성을 높여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시장 보아주기, 정신적 지지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협조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도 접촉자도 다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다. 나도 걸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인내해가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자.

강대희 |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출처 : 경향신문(<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96967>)

[붙임1]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

● 예시1. 대한의사협회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한 단계 상승
-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 지나면 한 단계 아래로 전원가능

확진자 구분	분류 기준
무증상	• 아래조건 모두 충족 ① 의식명료 ② 50세 미만 ③ 기저질환없음 ④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 ⑤ 비흡연자
경증	•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50세 미만 ② 기저질환 없음 ③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 ④ 호흡곤란을 제외한 1개 이상 증상* ⑤ 흡연자
중증	•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② 호흡곤란 또는 영상소견상 폐렴
위중	① 의식이 떨어진 경우 ② 중증의 호흡곤란 ③ 산소포화도 90% 이하 ④ 영상소견에서 중증도의 양측성 폐렴 또는 50% 이상 폐렴

* 증상 : 두통, 기침, 인후통, 가래, 피로감, 근육통, 호흡곤란

※ 출처 :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2020.3.5.)

● 예시2. 수정된 조기경고점수(Modified Early Warning Score : MEWS)

변수	3	2	1	0	1	2	3
맥박(회/분)		≤40	41~50	51~100	10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mmHg)	≤70	71~80	81~100	101~199		≥200	
호흡수(회/분)		≤8		9~14	15~20	21~29	≥30
체온(℃)		≤35.0	35.1~36.0	36.1~37.4	≥37.5		
의식수준				정상	목소리 반응	통증 반응	무반응

* 조기경고점수(early warning score) : 환자가 급격한 위급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

● 중증도 분류에 대한 조치사항

위험정도	경증(저위험군)	중등중(중등도위험군)	중중(고위험군)	최중중(고위험군)
점수	0~4점	5~6점	7점 이상	7점 이상
모니터링 빈도	6~12시간	1~2시간	지속	지속
조치사항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기계호흡 등이 필요	• CRRT, ECMO 필요 • 비가역적 뇌손상, 다발장기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질환을 가진 환자

● 예시3. 영국 조기경고점수(National Early Warning Score : NEWS)

변수	3	2	1	0	1	2	3
산소포화도	≤91	92~93	94~95	≥96			
산소투여여부	예	예	아니오	아니오			
맥박	≤40		41~50	51~90	9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	≤90	91~100	101~110	111~219			≥220
호흡수	≤8		9~11	12~20		21~24	≥25
체온	≤35.0		35.1~36.0	36.1~38.0	38.1~39.0	≥39.1	
의식수준				정상			이상

- 5점 이상 중등도, 7점 이상 중증

※ 예시2,3 출처 : 대한중환자의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감염학회·대한흉근요법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중증환자용). (2020.3.2.)

● 고위험군

고위험군 연령	•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1판)」 (지자체용)

[국민안심병원 현황]

[서울시]

2020. 3. 11. 기준

연 번	자치구	기관명	신청유형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베드로병원	외래진료	02-1544-7522
2	강남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3	강남구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019-2114
4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외래진료	02-6925-1111
5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440-8114
6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외래진료	1588-4100
7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25-1111
8	강서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9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522-7000
10	관악구	심정병원	외래진료	02-1588-3330
11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877-8875
12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33
13	광진구	혜민병원	외래진료	02-2049-9000
14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26-1114
15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858-0100
16	금천구	희명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04-0002
17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외래진료	02-970-8000
18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래진료	02-950-1114
19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외래진료	02-970-2114
20	도봉구	한일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01-3114
21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58-8114
22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77-3675
23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외래진료	02-966-1616
24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70-2114
25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6299-1114
26	서대문구	동신병원	외래진료	02-396-9161
27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99-1004
28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11
29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90-8114
30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20-5114
31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912-0100
32	양천구	메디힐병원	외래진료	02-2604-7551
33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50-5114
34	양천구	홍익병원	외래진료	02-2693-5555
35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661-7575
36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외래진료	1899-1475
37	영등포구	새길병원	외래진료	02-1522-0075
38	영등포구	성애병원	외래진료	1811-8114
39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외래진료	02-2632-0013~8
40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29-5114
41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709-9114
42	은평구	본서부병원	외래진료	02-3156-5000
43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외래진료	02-353-5511~9
44	종로구	강북삼성병원(3.16.부터 운영)	외래진료 및 입원	02-2001-2001
45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5700
46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외래진료	02-2002-8000
47	종로구	세란병원	외래진료	02-737-0181
48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60-7114
49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래진료	02-2270-0114
50	중랑구	녹색병원	외래진료	02-490-2000
51	중랑구	동부제일병원	외래진료	02-437-5011
총합	22개 자치구	51개소	외래 28개소, 외래 및 입원 23개소	-

지역(시도)	기관명
부산(33)	BHS한서병원, 광혜병원, 구포성심병원, 기장병원,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대동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동래봉생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성모병원, 부산센텀병원, 부산우리들병원, 삼육부산병원, 서부산센텀병원, 새우리남산병원, 세웅병원*, 에스병원, 영도병원, 오성병원, 온종합병원, 우리원병원(3.16),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일신기독병원, 좋은강안병원, 좋은문화병원, 좋은삼선병원, 한양류마디병원, 해동병원, 해운대부민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 효성시티병원
인천(23)	기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검단탑병원*, 길병원*, 나누리병원(부평구), 나누리병원(미추홀구), 나사렛국제병원*, 나은병원*, 뉴성민병원, 더드림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부평세림병원, 비에스종합병원*, 성모월병원, 온누리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백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한길안과병원, 한림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대구(16)	경북대학교병원, 광개토병원, 광병원, 구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대구보광병원, 대구시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드림병원, 삼일병원, 서대구병원, 세강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참조은병원, 천주성삼병원, 푸른병원
광주(5)	KS병원, 광주기독병원, 서광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첨단종합병원
대전(6)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한국병원, 유성선병원
울산(9)	21세기좋은병원, 동강병원, 서울산보람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병원, 울산보람병원, 울산시티병원, 좋은삼정병원, 중앙병원
경기(71)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강남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광명성애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김포우리병원*, 나누리수원병원, 남양디에스병원*, 남양주한양병원, 뉴고려병원*, 다니엘종합병원, 다보스병원, 단원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동수원병원, 메디인병원, 명지병원*, 바른마디병원, 바른세상병원, 박병원*, 박애병원*, 베리굿병원, 부천우리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제생병원*, 사랑의병원, 서울나우병원, 성베드로병원, 세종병원*, 세종여주병원*, 센트럴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안성성모병원, 안양윌스기념병원,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연세새로운병원, 예순병원, 오산한국병원, 온누리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원광종합병원, 윌스기념병원, 의정부백병원, 이천엘리아병원, 이춘택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일산복음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정병원*, 조은오산병원, 중앙대의료원교육협력현대병원*, 지샘병원, 지우병원, 참조은병원, 평택굿모닝병원*, 평택성모병원*, 포천우리병원, 하남SD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화성중앙종합병원*, 히즈메디병원
강원(7)	강릉고려병원, 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속초보광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홍천아산병원
충북(9)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베스티안병원, 제천명지병원, 제천서울병원, 진천성모병원, 청주성모병원, 하나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충남(12)	단국대학교병원*, 당진종합병원, 백제병원, 본정형외과병원, 서산중앙병원, 서울대정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아산충무병원*, 예산종합병원, 천안우리병원, 천안충무병원*, 현대병원
전북(10)	고창종합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대자인병원, 동군산병원*, 예수병원*, 익산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병원*, 호성전주병원
전남(12)	고흥종합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시의료원, 목포중앙병원,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순천한국병원*, 여수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여수한국병원, 여천전남병원, 장흥종합병원
경북(15)	경산중앙병원, 김천제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문경제일병원, 바른유병원, 상주성모병원, 세명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안동병원, 안동성소병원, 좋은선린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우리병원
경남(29)	365병원, CNA서울아동병원, 갑을장유병원, 거봉백병원, 거창적십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 김해복음병원, 대우병원*, 마산서울병원, 맑은샘병원, 밀양윤병원, 반도병원, 베데스다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에스엠지연세병원*, 연세에스병원, 조은금강병원, 진영병원, 진주고려병원, 진주바른병원, 진주복음병원, 진주세란병원, 진주제일병원, 창원제일종합병원, 청아병원, 한일병원, 함양성심병원
제주(4)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총합	15개시도 261개소

별(*)표시 기관은 외래/입원/선별진료소 운영기관 그 외 외래진료만 운영. 출처(3.11) : 대한병원협회, 국민안심병원 최신현황 (<https://www.kha.or.kr/>).

[붙임3] 서울시 선별진료소 목록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5555	38	서초구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1588-1511
2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02-3410-2114	39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02-570-8000
3	강남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40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172
4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02-440-7000	41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5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8565	42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6022
6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02-2224-2358	43	성북구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안암병원) *	02-1577-0083
7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1100	44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78-9
8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706 02-901-7704	45	송파구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02-3010-3114
9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68	46	송파구	경찰병원*	02-3400-1124
10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02-1522-7000	47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3856
11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48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02-1566-6688
12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신사동 코로나19 건강상담소	02-879-7241	49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02-1666-5000
13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2-1877-8875	50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53
14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937	51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2-829-5114
15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02-450-7090	52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2-1661-7575
16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02-1588-1533	53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02-840-7114
17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003	54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02-829-7800
18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가리봉동선별진료소*	02-860-2018	55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8371-4
19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02-2626-1114	56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20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2627-2717	57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640
21	금천구	독산보건분소	02-2627-1967	58	은평구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02-3156-3022
22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3300-4	59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02-300-8060
23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02-970-8000	60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958-2114
24	노원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02-950-1114	61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57
25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483	62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02-2001-2001
26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283	63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650
27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64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02-2270-0114
28	동대문구	삼육 서울병원*	02-1577-3675	65	중구	중구보건소*	02-3396-5181
29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	02-920-9118-9	66	중구	중구보건소 명동선별상담소	02-3396-5181
30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02-966-1616	67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2094-0800
31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9465	68	중랑구	서울의료원*	02-2276-8333
32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신대방선별진료소	02-832-9404	69	서초구	서초 소방학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3	동작구	보라매병원*	02-870-2114	70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34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37	71	은평구	서울시립은평병원	
35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8726	72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36	서대문구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02-1599-1004				
37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8093				

* 검체채취 가능

* 출처(3.11)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